

【P3-17】

시간의 추이에 따른 연세교직원 혈청지질농도와 건강변인들과의 관계

김완아*, 김숙영, 박계숙, 이양자.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세대학교 보건진료소장. 안산공업대학 전산과

우리나라의 질병 양상은 국가의 경제적인 발달과 소비수준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감염성질환의 사망률은 줄어들고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두드러지는 질병은 심혈관계 관련된 질환으로 혈청지방의 농도와 식습관이 많은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의 자료가 아닌 한국인의 혈청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정상기준치를 설정하고자 하는 연구와 한국인의 혈청지질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수행중이며, 만성퇴행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의 건강검진 결과가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질병관리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혈청지질농도의 연도별 변화를 조사하고 연령, 성별, 비만도, 혈압과 혈청지질농도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앞으로의 질병의 초기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93년부터 99년까지의 연세대학교 교직원의 건강검진 자료로 격년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연세대학교 교직원들의 연속적인 자료('93년~'99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만도가 높을수록 혈청지질농도(TG, CHOL)가 높아진다. 특히 BMI가 25kg/m²이고, PIBW가 120%이상 일 때에 확연히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에서도 TG와 CHOL농도에 대해서 WT와 HT가 factor임을 보여준다(p<0.05). 혈압을 정상혈압(SBP ≤140, DBP ≤90)과 비정상 혈압으로 나누었을 때 비정상혈압군에서 TG, CHOL이 더 높아 혈압이 혈청지질농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혈압과의 관계에서 DBP보다 SBP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p<0.05).

시간에 흐름에 따라 혈청지질농도의 결과는 '93년에서 '99년으로 갈수록 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이고, 남자는 97년도를 제외하고는 여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97년도의 남자의 결과는 4개년도 중 CHOL 농도가 가장 높지만, 동시에 LDL-C와 HDL-C가 높음을 보인다. TG의 농도는 남자가 '93년에 가장 높고 여자는 '99년에 높다. 연도별로 연령의 비율을 볼 때 남자는 93년에 50세 이상이 많고 여자는 99년에 가장 많았다. TG의 농도와 WT, SBP, CHOL농도와 정비례를 나타내고, CHOL농도와 AGE, WT, TG, HDL-C는 정비례를 나타내어 키가 작은 사람일수록 TG, CHOL농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TG의 농도와 CHOL농도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보조적인 결과가 필요하다. 단지 집단의 n수와 혈청지질농도만을 가지고 결론 내리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식생활의 변화로 말미암아 '93년에서 '99년으로 갈수록 CHOL농도는 증가하고, TG의 농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4년 간 연속된 data의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CHOL농도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TG의 농도에서는 연도별로 어떠한 경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PIBW와 BMI가 연도가 '93년~'99년으로 갈수록 수치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혈청지질농도에 age, height, weight 주요 factor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당한 운동과 바람직한 식습관으로써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함을 지킬 수 있다. 비만을 성인질환의 주요요인이므로 체중감소로 합병증예방과 치료를 하고 삶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다.